

2015년 11월 16-21일 가나 테사노시 아파데 로지 호텔에서 개최된 ACRC/NEAAC 두 지역 공동 심의회의 메시지

2015년 11월 16-21일 가나 아크라 테사노에서 세계개혁교회 커뮤니티(WCRC)에 속한 아프리카 개혁교회 커뮤니티(ACRC)와 동북아 지역 협의회(NEAAC)의 대표들이 “젠더 관점에서 시대의 표적을 해석하기: 두 지역 공동 대화, 아크라 고백서 + 10”이란 주제를 가지고 두 지역 공동 심의회로 모였다.

이번 심의회의 일반적 목표는 젠더 관점과 다양한 상황을 통해 교회가 직면한 폭력과 불의, 인간 존재·본성의 타락 등의 도전을 성찰해 보는 것이다.

매일 성경공부로 시작된 심의회의 분위기는 사뭇 참여적이었으며 여성주의(womanist) 관점에서 에스더, 마가복음, 요한계시록 등의 성경 본문을 읽고 해체를 시도하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기조강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이 재천명되었다. 아크라 고백서를 작성한 24차 세계개혁교회 연맹(WARC) 총회에 근거하여, 개혁주의 신앙으로 시대의 표적과 성경을 해석하는 작업에 담긴 근본적 함의들이 강조되었다. 즉 우리가 목도하는 실재에 대항해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직성은 위태로와진다는 뜻이다. 2004년 총회 이후로 상황이 변했는지 또한 그 이후로 인신매매, 국내 노예 노동, 세계경제의 편성 추세, 가정폭력, 실업, 및 성적 학대 등과 같이 너무나 많은 깨어짐이 있을 때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수수방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은 물을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동북아 지역 협의회로부터 다양한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해서도 들었다. 교회가 먼저 그 집을 정돈해야 하고 자아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양한 상황에서 나온 경험들을 반영한 다양한 발제는 그런 요점을 강조하는데 기여했다. 즉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다.

대표들이 고통스러운 노예제도 역사에서 정의 문제를 더 깊게 이해하도록 ACRC는 가나의 엘미나 성(Elmina Castle)의 현장 방문을 주선했다. 인간을 상품화하고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강간과 같은 비인간적 행동에 저항하면 굶겨 죽이기까지 했던 여성전용 감옥 바로 위에 세워져 있는 개혁교회는 위선의 증거다. 물론 모든 노예들에 대한 일반적 대우에서 교회가 지배와 정복의 상징을 문화적으로 후견하는 세력으로 스스로 전략할 수 있는 모습이 입증되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에 대한 변절이다.

가나 장로교단(Presbyterian Church of Ghana)과 가나 복음주의 장로교단(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 Ghana), 여타 현지 회원 교회들의 지도자들과 찬양대가 대표단을 따뜻하게 축하하고 환영해주었다. 이 주간의 경험은 계속 기억되어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로운 지구촌을 위한, 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역과 기대에 참여하도록 자극해 줄 것이다.

분별과정과 말씀연구를 마친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결정안들을 실천하기로
결의했고 모든 회원교단들에게도 동일 안건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1. 교회들이 사역자들에게 생명긍정적 성경해석을 훈련·재훈련할 것을 촉진한다.
2. 모든 이의 온전한 참여를, 예컨대 여성과 안수 분야에서 온전한 참여를,
방해하는 정책과 헌법조항을 수정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청년, 어린이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만든다.
3. 지역교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성경공부 모델을 개발하고 참여를 권장한다.
4. 회원 교회들·지역들·국제커뮤니언 간의 네트워크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사역을 지원한다. 또한 그 공동체들마다 모든 대표들이 공정한 대변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모든 회원교단 안에 정의 관련 업무를 신설/강화한다.
6. 침묵을 깨뜨린다!